

한국(韓國)의 석등(石燈)

●…한국(韓國)의 석등(石燈)은 거의 전부(全部)가 화강석제(花崗石製)이며, 형태(形態)로 보나 장식조루(裝飾彫鏤)로 보나 동양(東洋)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美)를 갖추고 있으며, 특(特)히 고대(古代)의 불찰(佛刹)에 설치(設置)한 석등(石燈)은 그 조형미(造形美)에 있어…●

●…서 최상(最上)의 지위(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秦弘燮

1.

석등(石燈)은 석제등감(石製燈龕)을 말한다. 즉(卽) 등화(燈火)를 장치(裝置)하기 위(爲)한 시설물(施設物)로서 석조(石造)도 있고 동조(銅造)도 있다. 석조(石造)일 때 석등(石燈)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原則)이겠으나 한국(韓國)에서는 전부(全部)가 석조(石造)이기 때문에 석등(石燈)이 곧, 대명사(代名詞)같이 사용(使用)되고 있다.

석등(石燈)에는 불교적(佛敎的)인 목적(目的)으로 이용(利用)되는 것과 비종교적(非宗敎的)인 목적(目的)으로 이용(利用)되는 두 가지가 있는 바, 전자(前者)의 예(例)로는 불전(佛殿) 혹은(或)은 탑(塔) 앞에 설치(設置)하여 그 곳을 밝혀주는 것으로서 불타(佛陀)의 광명(光明)을 상징(象徵)하는 뜻도 있음으로 사적기(事蹟記)같은 기록(記錄)에는 모두 「광명등(光明燈)」의 명칭(名稱)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후자(後者)의 예(例)로는 주택(住宅) 혹은(或)은 분묘(墳墓)앞에 설치(設置)하는 것으로서 흔히 「장명등(長明燈)」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러한 석등(石燈)들은 시대(時代)를 따라 지역(地域)을 따라 일정(一定)한 형식(形式)을 볼 수 있고, 같은 형식(形式)일지라도 형태(形態)의 우열(優劣)과 장식(裝飾)의 교졸(巧拙)을 볼 수 있다.

한국(韓國)의 석등(石燈)은 거의 전부(全部)가 화강석제(花崗石製)이며, 형태(形態)로 보나 장식조루(裝飾彫鏤)로 보나 동양(東洋)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美)를 갖추고 있으며, 특(特)히 고대(古代)의 불찰(佛刹)에 설치(設置)한 석등(石燈)은 그 조형미(造形美)에 있어서 최상(最上)의 지위(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는 기발(奇拔)한 착상(着想)으로 통식(通式)에서 벗어난 조형(造形)을 보이는 것이 있음은 한국인(韓國人)이 석조미술(石造美術)에 있어서 얼마나 다재(多才)로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하(以下) 시대(時代)를 따라 지역(地域)을 따라 대표작(代表作)을 들어보기로 한다.

2.

그러나, 한가지 유감(遺憾)된 것은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 석등(石燈)은 완형(完形)은 물론(勿論) 부재(部材)조차 발견(發見)된 일이 없다. 사지(寺址)가 알려졌으면 석등(石燈)이 있었을 법하나 이제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러한 사정(事情)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백제(百濟)나 신라(新羅)도 거의 동일(同一)하니 신라(新羅)에서도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속(屬)하는 석등(石燈)이 없고 모두 통일시대(統一時代) 속(屬)한 것 뿐이다. 이에 비(比)하여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석등(石燈)은 물론(勿論) 완형(完形)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부재(部材)가 약간(若干) 발견(發見)되고 있다. 그 중(中)에 전북익산(全北益山)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 발견(發見)되어 부여박물관(扶餘博物館)에 진열(陳列)되고 있는 화사석(火舍石) 수개(數個)는 온아(溫雅)한 모습이 가(可)히 볼만 하다. 신라(新羅)의 석등(石燈)과 같이 팔각(八角)이며 일변(一邊)이 길러 사개(四個)의 화창(火窓)이 났는데 「엔타시스」를 가진 우미(優美)한 조형(造型)이 백제(百濟)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形態)이다. 신라(新羅)의 석등(石燈)이 모두 상하팔각(上下八角)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고 있는데 백제(百濟)의 석등(石燈) 또한 대차(大差)없는 형태(形態)였으리라 짐작된다. 또 하나 복련(伏蓮)이 양각(陽刻)된 하태석(下台石)도 같은 수법(手法)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全體)의 형태(形態)도 우미(優美)할 뿐만 아니라 연판(蓮瓣) 자체(自體)도 백제시대(百濟時代)의 특징(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만약(萬若) 완전(完全)한 석등(石燈)이 남아 있었더라면 그 형태(形態)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해 본다. 부드러운 연화문(蓮華紋)과 「엔타시스」로 변화(變化)를 준 석등(石燈)의 형태(形態)는 필시(必是) 저 부여(扶餘) 정림사지(定林寺址) 석탑(石塔)과 같은 유연(柔然)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화엄사 각황전(華嚴寺 覺皇殿) 앞 석등(石燈)>

3.

이와 같이 적막(寂寞)한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비(比)하여 통일시대(統一時代)에는 다채(多彩)로운 양식(樣式)을 볼 수 있고, 유존(遺存)된 수(數)에 있어서도 상당(相當)히 많다. 그 기본형태(基本形態)는 팔각(八角)을 위주(爲主)로 하면서 지역적(地域的)으로 변화(變化)됨을 볼 수 있고, 기발(奇拔)한 착상(着想)에서 우러나온 이형(異型)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식(樣式)을 따라 대별(大別)하여 보면,

- ① 전형양식(典型樣式)

② 고복형양식(鼓腹型樣式)

③ 이형양식(異型樣式)

의 삼양식(三樣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형양식(典型樣式)이라 함은

① 방형(方形)의 지대석(地台石)위에

② 복련(伏蓮)이 조각(彫刻)된 팔각하대석(八角下台石)이 놓이고,

③ 그 위에 장식(裝飾)이 없는 팔각간석(八角竿石)이 있어,

④ 양련(仰蓮)이 조각(彫刻)된 팔각상대석(八角上台石)을 받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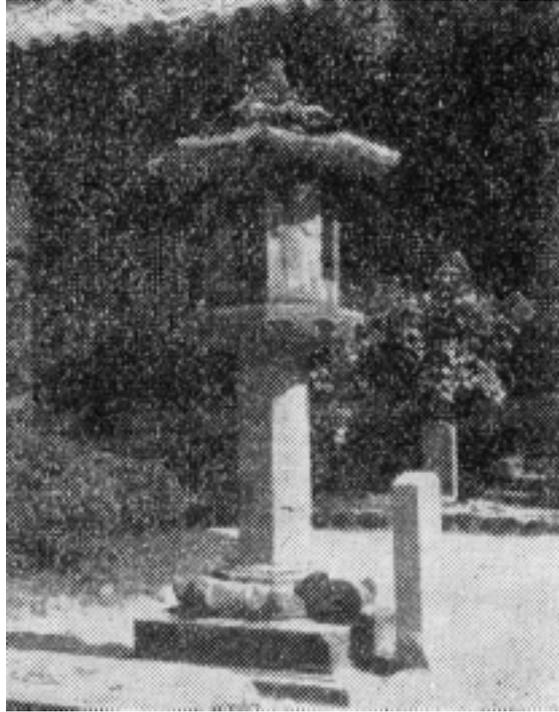
⑤ 그 위에 4개(四個)의 화창(火窓)이 있는 팔각화사석(八角火舍石)을 얹고,

⑥ 다시 팔각개석(八角蓋石)을 얹으며,

⑦ 상륜(相輪)을 그 중앙(中央)에 얹은 형태(形態)이다.

이러한 전형양식(典型樣式)이 현존(現存)한 석등(石燈) 中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점(點)으로 보아 삼국기(三國期), 통일기(統一期)를 통(通)하여 가장 유행(流行)하던 형식(形式)이며, 고복형(鼓腹型)이나 이형(異型)도 이 전형양식(典型樣式) 부분적(部分)인 변개(變改)인 것이다.

전형양식(典型樣式)도 각부(各部)의 비례(比例)에 따라 미적(美的) 요소(要素)의 차이(差異)를 보이게 된다. 즉(卽), 각부(各部)의 넓이와 높이의 비례(比例) 맞을 때 비로서 경쾌(輕快)하다든지 우미(優美)하다든지 안정감(安定感)이 있다든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앞 석등(石燈)(국보 第17號), 법주사(法住寺) 사천왕석등(四天王石燈)(寶物 第15號)등의 형식(形式)에 속(屬)하는 가장 아름다운 석등(石燈)들이다. 부석사(浮石寺) 석등(石燈)은 밑에 넓직한 방형지이석(方形地履石)이 있고, 그 위에 적당(適當)히 감축(減縮)된 지대석(地台石)이 있는데 4면(四面)에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가장 많이 쓰이던 양식(樣式)의 안상(眼象)이 이구식(二區式) 조각(彫刻)되어 있다. 그 상면(上面)에는 팔각하대석(八角下台石)을 받기 위(爲)한 물덩을 마련하여 귀퉁이 있고, 팔판단엽(八瓣單葉)의 연화(蓮花)를 조각(彫刻)한 하대석(下台石)을 받고 있다. 이 하대석(下台石) 상면(上面)에는 간석(竿石)을 받기 위(爲)하여 4단(四段)의 물덩을 두었으니 그 위에 얹힐 구조(構造)를 떠 받는 힘을 주었다. 간석(竿石)은 팔각(八角)의 화사(華奢)한 모습으로 비록 표면(表面)에 아무 조각(彫刻)도 없으나 적당(適當)한 굵기와 적당(適當)한 높이가 그 상하(上下)의 연화문장식(蓮花紋裝飾)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상대석(上台石)은 하대석(下台石)과 같은 팔판단엽(八瓣單葉)의 양화(仰花)인데 두께가 얇아서 그 위에 얹힌 화사석(火舍石)을 가볍게 받고 있다. 4개(四個)의 화창(火窓)이 뚫린 화사석(火舍石)도 간석(竿石)과의 넓이와 높이의 비례(比例), 상대석(上台石)과의 넓이의 비례(比例)가 알맞아서 실(實)로 아름다운 조형(造形)을 보이고 있다. 개석(蓋石) 또한 낙수면(落水面)의 적당(適當)한 경사(傾斜), 추녀 넓이와 각부(各部)와의 균형(均衡)잡힌 비례(比例)가 모두 조화(調和)되어 있다. 만약(萬若) 이 석등(石燈)의 각부(各部)의 넓이나 높이에서 어느 곳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한다고 상상(想像)하여 보면 도무지 손 댈 곳이 없어진다. 이만큼 이 석등(石燈)은 조화(調和)된 미(美)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앞 석등(石燈)>

그런데, 이 석등화사석(石燈火舍石)에는 화창(火窓)이 뚫리지 않은 4면(四面)에 연화대(蓮花臺) 위의 보살입상(菩薩立像)을 일구식조각(一軀式彫刻)하였다. 이것은 일종(一種)의 장식(裝飾)으로서 정형양식(典型樣式)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樣式)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와서도 그러한 예(例)를 볼 수 있다. 위선(爲先)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작품(作品)에서 그 예(例)를 들어 본다면,

① 전개(前掲)한 법주사(法住寺) 사천왕석등(四天王石燈)에는 화창(火窓)이 안뚫린 화사석(火寺石) 4면(四面)에 각각(各各) 사천왕상일구식(四天王像一軀式)을 조각(彫刻)하였고,

② 영암사지(靈岩寺址)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寶物 第三十五號)에는 같은 위치(位置)에 사천왕상일구식(四天王像一軀式)을 조각(彫刻)하였고,

③ 그 외(外)에도 수삼(數三) 예(例)를 볼 수 있다.

석등(石燈) 각부재(各部材)에서 볼 때 장식조각(裝飾彫刻)이 시공(施工)되려면 화사석(火寺石)과 지대석측(地台石側) 밖에는 자리가 없다.

팔각간석(八角竿石)에도 공간(空間)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 어떠한 조각(彫刻)을 한다면 지나치게 번잡(繁雜)하게 될 것이다. 후대(後代)의 작품(作品)으로 그러한 예(例)가 있으나 너무 무거워 보인다. 화사(火舍)의 조각(彫刻)은 번다(繁多)한 감(感)이 없지는 않으나 팔각간석(八角竿石), 팔각화사(八角火舍)가 모두 주형(柱形)을 이루어 평범(平凡)에 흐르기 쉬운데 여기 변화(變化)와 조화(調和)를 주는 효과(效果)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각장식(彫刻裝飾)은 하대석(下台石) 각면(各面)에도 시공되고 있으니 그 문양(紋樣)은 안상(眼象)이 압도적(壓倒的)으로 많다. 안상구(眼象區)의 수(數)나 형태(形態)는 석등(石燈) 자체(自體)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석조유물(石造遺物)에서도

태석(台石)에 가장 많이 이용(利用)되는 문양(紋樣)이다. 안상(眼象) 내(內)에는 아무 장식(裝飾)이 없는 것이 통례(通例)이지만 경주박물관 석등(慶州博物館 石燈)(상대석이상(上台石以上))이 일실(逸失)되었다.)은 그 크기에 있어서 거작(巨作)일 뿐만아니라 하태석(下台石) 연판(蓮瓣) 역시(亦是) 웅대(雄大)하데 그 팔각측면(八角側面)에는 안상(眼象) 내(內)에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조각(彫刻)하였는바 조상(造像)이 장위(壯偉)하고 도법(刀法)이 대담(大膽)하여 만약(萬若) 이것이 완품(完品)이었드라면 한국(韓國) 최대(最大)의 걸작(傑作)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석등(石燈) 각부(各部)에 베풀어지는 장식(裝飾)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실상사 백장암 석등(實相寺 百丈庵 石燈)(寶物 第40號)을 보자 현재(現在) 완형(完形)을 이루고 있지는 않으나 활달명랑(濶達明朗)한 형태(形態)가 시원하며, 조각수법(彫刻手法) 역시(亦是) 각명미려(刻明美麗)한데 팔각양련상대석상면(八角仰蓮上台石上面)에는 난간(欄干)이 둘러있는 것이 특(特)히 눈에 띈다. 이 난간(欄干)은 석등(石燈) 옆에 있는 삼층석탑(三層石塔)에도 각층(各層) 탑신(塔身)밑에 같은 형식(形式)으로 둘러있다. 이 탑(塔)은 난간(欄干)만 도렸을 뿐 아니라 옥개석(屋蓋石) 밑에는 두공형(料栱形)이 모각(模刻)되어 목탑형식(木塔形式)을 모방(模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등(石燈)에 난간(欄干)을 둘러린 점(點)도 이러한 의장(意匠)에서 나온 것으로 상대석(上台石) 양련판(仰蓮瓣) 내(內)에 화문(花紋)을 조각(彫刻)한 점(點)과 아울러 우아(優雅)함을 더하고 있다.



<관촉사 석등(灌燭寺 石燈)>

전형석등(典型石燈)에서는 조각(彫刻)의 가식(加飾)뿐 아니라 형태(形態)에도 변화(變化)를 준 예(例)가 있다. 보림사(寶林寺) 석등(石燈)(國寶 四四號)은 이중(二重)의 옥개(屋蓋)를 얹고 있다. 즉(卽), 화사석(火舍石) 위에 큰 개석(蓋石)을 얹고 이발(履鉢) 비슷한 형태(形態) 위에 받침을 얹고 조그만한 보개(寶蓋)를 얹은 것이다. 이러한 양식(樣

式)은 매우 드문 것으로 다음에 들 고복형(鼓腹形)에 속(屬)하는 실상사(實相寺) 석등(石燈)(寶物 第三五號) 화엄사(華嚴寺) 각황전(覺皇殿) 앞 석등(石燈)(國寶 第十二號)에서 볼 수 있고, 임실(任實) 용암리(龍岩里) 석등(石燈)(寶物 第二六七號)도 현재(現在)는 상륜부(相輪部)가 완전(完全)하지 않으나 혹(或) 이러한 보개(寶蓋)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상상(想像)된다. 이와같은 양식(樣式)은 신라(新羅)에서 발생(發生)하여 고려(高麗) 석등(石燈)에도 영향(影響)을 주고 있다.

다음 고복형(鼓腹形) 석등(石燈)을 보기로 하자. 그 형태(形態)는 상하(上下) 모두 팔각(八角)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고 있음은 전형양식(典型樣式)고 같으나 다만 전형양식(典型樣式)의 팔각간석(八角竿石) 대신(代身) 고형(鼓形)의 간석(竿石)으로 대치(代置)한 점(點)이 다르다. 그 예(例)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華嚴寺 覺皇殿 앞 石燈)(國寶 第十二號)(전남(全南))
- ② 개선사 석등(開仙寺 石燈)(寶物 第一一一號)(전남(全南))
- ③ 실상사 석등(實相寺 石燈)(寶物 第三五號)(전북(全北))
- ④ 임실 용암리 석등(任實 龍岩里 石燈) (寶物 第二六七號)(전북(全北))
- ⑤ 청량사 석등(淸涼寺 石燈)(寶物 第二五三號)(경남(慶南))

등(等)을 들 수 있다. 이 석등(石燈)들의 고복형(鼓腹形) 간석(竿石)의 형태(形態)는 반드시 동일(同一)하지 않고 각각(各各) 다른 형태(形態)를 하고 있으나 간석(竿石) 중간(中間)에 굽은 마디가 있고, 그 아래 위가 잘록했다가 아래 위로 다시 굽어지는 형태(形態)는 대체(大體)로 비슷하다. 이들 중(中) 화엄사(華嚴寺) 석등(石燈)의 간석(竿石)은 그 외형(外形)이 흡사(恰似) 장고(長鼓)같고, 청량사(淸涼寺) 석등(石燈) 또한 근사(近似)한 형태(形態)지만 그 외(外)의 석등(石燈)은 중간(中間)마디가 특(特)히 강조(強調)되고 있어 고형(鼓型)의 변형(變形)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간석(竿石)에는 예외(例外)없이 장식문양(裝飾紋樣)이 조각(彫刻)되었는데 연화(蓮花)가 가장 많이 이용(利用)되었고, 사화문등(四花門燈)이 고석(鼓石)에 양각(陽刻)되고 있다. 간석(竿石)의 높이도 다른 부재(部材)의 크기에 따라 각각(各各) 다르지만 팔각형(八角形)의 전형(典型) 석등(石燈)에 비(比)하면 약간(若干) 둔(鈍)한 느낌을 준다.

이 형식(形式)의 석등(石燈)에서는 특히 장식성(裝飾性)이 강조(強調)되고 있다. 청량사 석등(淸涼寺 石燈) 하대석(下台石) 측면(側面)에는 각면(各面)에 안상(眼象)을 조각(彫刻)하고 그 안에 사자(獅子)와 운상루각형(雲上樓閣形)을 교체(交替)로 조각(彫刻)하여 화려(華麗)한 장식(裝飾)을 하였고, 화사석(火舍石) 사면(四面)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양각하여 간석(竿石)과 아울러 전면(全面)에 조식(彫飾)이 대단(大端)하다.

그 뿐만아니라 하대석(下台石)과 개석(蓋石)에 있는 귀꽃이 유난히 강조(強調)된 점(點)이 눈에 띈다. 물론(勿論) 귀꽃의 문양(紋樣)은 각각 다르지만 다른 형식(形式)의 석등(石燈)에 비(比)해 특(特)히 크게 표현(表現)되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點)은 전형양식(典型樣式)에서는 팔각화사석(八角火舍石)의 사면(四面)에만 화창(火窓)을 냈는데 이 형식에서는 8면(面)에 모두 화창(火窓)을 개설(開設)한 것을 볼 수 있다. 화창(火窓)의 개설(開設)은 광명(光明)이 밖에 미치게 하는 역할(役割)이므로 많을수록 좋겠지만 전형(典型) 석등(石燈)에서는 모두 사화창(四火窓)이던 것이 이 형식(型式)에서 전면(全面) 화창(火窓)으로 되어 있음은 과다(過多)한 감(感)을 갖게 된다. 이와같은 고복형 석등(鼓腹形石燈)이 유존(遺存)하는 예(例)로서 전개(前掲)한 5례(五例)中 전라남북도(全羅南北道)에 4례(例)가 있고 경남(慶南)에 일례(一例)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형식

(形式)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호남지방(湖南地方)에서 특(特)히 유행(流行)하던 형식(形式)으로 지역적(地域的)인 특색(特色)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에 이형양식(異型樣式)을 보기로 하자. 이형식(形式)에 속(屬)하는 것 中에 가장 많이 이용(利用)된 양식(樣式)이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이다. 불교미술품(佛敎美術品)중에서 사자(獅子)를 이용(利用)한 유물(遺物)이 많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니 그 中에서도 화엄사(華嚴寺) 사사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은 대표적(代表的)인 것이다. 따라서 석등(石燈)에 사자(獅子)를 이용(利用)하려는 착상(着想)은 곧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사자(獅子)는 석등(石燈)에서는 간석(竿石)에 이용(利用)되고 있다. 팔각주형(八角柱形)이나 고복형(鼓腹形)을 쓰지 않고 두 마리의 사자(獅子)가 마주 서서 뒷 발을 하대석(下台石)에 버티고 가슴을 맞대고 앞 발을 들어서 상대석(上臺台)을 받치고 있는 형상(形狀)이다. 석탑에서 사자(獅子)를 이용(利用)할 때 4필(匹)을 배치(配置)하는 대신 석등(石燈)에서는 2필(匹)을 利用하게 된다. 이것은 가는 간석(竿石)의 역할(役割)을 할 때 4필(匹)을 이용(利用)할 자리도 없으려니와 그럴 필요(必要)도 없었을 것이다. 이 형식(形式)의 석등(石燈)으로 다음과 같은 예(例)를 들 수 있다.

- ① 법주사 쌍사자석등(法住寺 雙獅子石燈)(國寶 第五號)
- ② 중흥산성 쌍사자석등(中興山城 雙獅子石燈)(國寶 第一〇三號)
- ③ 영암사지 쌍사자석등(靈岩寺址 雙獅子石燈)(寶物 第三五三號)

등(等)이다 .이 석등(石燈)들은 간석(竿石) 대신 쌍사자(雙獅子)를 배치(配置)한 점(點)이다. 다를뿐 그 외(外)의 부분(部分)은 팔각(八角)의 전형양식(典型樣式)고 같다.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에서도 지대석(地臺石)이나 화사석(火舍石)에 장식(裝飾)이 가미(加味)되어 있고, 이러한 장식(裝飾)은 쌍사자(雙獅子) 자체(自體)가 조법(彫法)과 아울러 전체(全體)에서 풍기는 조형감각(造形感覺)을 달리하고 있다. 중흥산성석등(中興山城石燈)은 현재(現在) 덕수궁(德壽宮)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건물(建物) 앞 정원(庭園)에 있는 바 지대석(地臺石) 팔면(八面)에 특이(特異)한 형식(形式)의 안상(眼象)을 조각(彫刻)했을 뿐 다른 조각(彫刻)이 없다. 간결명쾌(簡潔明快)한 모습이 청초(淸楚)한 기품(氣品)을 발산(發散)한다. 조그마한 사자(獅子)의 형태(形態), 소박(素朴)한 화사석(火舍石), 화사석과 옥개석(屋蓋石)과의 조화(調和), 모두 단정미려(端正美麗)하다. 다만 하대석이 하(下臺石以下)의 구조(構造)가 상부(上部)에 비(比)하여 약(弱)한 감(感)을 주는 것이 흠이다.



<중흥산성 쌍사자석등(中興山城 雙獅子石燈)>

영암사지(靈岩寺址) 석등(石燈)에서는 화사석(火舍石)이 사천왕상지대석(四天王像地臺石)에 안상(眼象)을 조각(彫刻)하고, 다시 그 안에 동물형(動物形)을 안배(按配)하여 쌍사자(雙獅子)와 아울러 전면(全面)에 장식성(裝飾性)이 농후(濃厚)하다. 화사석(火寺石)이 사천왕(四天王) 입상(立像)을 조각(彫刻)하는 관계(關係)인지 비교적(比較的) 높아졌으며, 그외(其外)의 부분(部分)도 폭(幅)에 비(比)해서 높이의 비례(比例)가 커서 전체적(全體的)으로 세장(細長)한 감(感)을 준다.

이런 (例)에 비(比)하면 법주사(法住寺)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은 사자(獅子)의 수법(手法)도 장중(莊重)하며, 장식(裝飾)이 적어서 소박(素朴)한 풍(風)을 보인다. 지대석(地臺石) 상면(上面)만이 지표(地表)에 노출(露出)되었고 그 이하(以下)가 매몰(埋沒)되어서 그런지 시각적(視覺的)으로 하부(下部)가 약(弱)한 감(感)을 준다. 그러나 지표(地表)에 노출(露出)된 지대석(地臺石)의 폭(幅)과 아울러 관찰(觀察)하면 균형(均衡)잡힌 웅위(雄偉)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크기에 있어서도 현고(現高) 2·3미(米)로 차종(此種) 석등(石燈)으로서는 가장 큰 작품이다.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이 기본형(基本形)을 잃지 않으면서 간석(竿石)에만 팔각주(八角株) 대신 쌍사자(雙獅子)를 대치(代置)하였으나 석탑(石塔)에 있어서 일반(一般) 전형양식(典型樣式)에서 완전(完全)히 벗어난 불국사(佛國寺) 다보탑(多寶塔)에 같은 기발(奇拔)한 작품(作品)이 생겨나듯이, 석등(石燈)에 있어서도 전형양식(典型樣飾)에서 완전(完全)히 벗어난 작품이 나타났다. 화엄사 사사삼층석탑 전 석등(華嚴寺 四四三層石塔前 石燈)이 그 것이다. 각면(各面)에 안상(眼象)이 조각(彫刻)된 방형지대석(方形地臺石) 위에 복련연화좌(伏蓮蓮花座)를 얹고 그위에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얹은 왼손에 보주(寶珠)를 받들고 있는 승형(僧形)의 인물좌상(人物坐像)을 안치(安置)하고, 그 위에

는 팔각개석(八角蓋石)을 얹었는데 지대석(地臺石)과 이 개석(蓋石) 사이에는 3본(本)의 원주(圓柱)를 하관(下寬) 상축(上促)하게 버티어 개석(蓋石)을 받치고 있다. 그위는 팔각상대석(八角上台石), 화사석(火舍石), 개석(蓋石), 보주(寶珠) 등(等) 통식(通式)을 따르고 있다. 대석부분(臺石部分)의 특이(特異)한 의장(意匠)은 상대(相對)하고 있는 사사석탑(四獅石塔)과 아울러 과연(果然) 신인(神人)의 착상(着想)이라 하겠다. 석등(石燈)에는 찰주(擦柱) 대신 합장(合掌)한 대덕(大德)의 입상(立像)을 세웠으니 속전(俗傳)하여 이 르기를 이는 화엄사(華嚴寺) 연기조사(烟起祖師)의 모친상(母親像)이라 하며, 석등(石燈)의 인물상(人物像)은 곧 연기조사(烟起祖師)라고 한다. 전설의 진부(眞否)를 따질 수는 없으나 그형태(形態)가 석탑(石塔) 내(內)에 대덕상(大德像)을 세운 데서 얻은 아이디어라고 하겠으나 석등(石燈)에 인물상(人物像)을 이용함은 의표(意表)에서 벗어난 일이며, 하관(下寬) 상축(上促)의 3본(本)의 석주(石柱)는 인물상(人物像)의 보호역할(保護役割), 석등(石燈) 자체(自體)에 안정감(安定感)의 부여(賦與) 등(等) 특이(特異)한 시각적(視覺的) 효과(效果)를 내고 있다. 불국사(佛國寺) 다보탑(多寶塔)이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걸작(傑作)인 것 같이 이 석등(石燈) 역(亦) 석탑(石塔)에 비(比)하면 소품(小品)이기는 하지만 후대(後代)의 석공(石工)이 감(敢)히 모방(模倣)을 하지 못한 걸작(傑作)이라 할 수 있다.



<옥구 발산리 석등(沃溝 鉢山里 石燈)>

이형석등(異型石燈)으로서 또 하나 재미있는 예(例)로 부인사 석등(符仁寺 石燈)이 있다. 상하(上下)의 각부(各部)가 팔각형(八角形)을 기본(基本)으로 삼되 정팔각형(正八角形)이 아니고 대석(臺石), 간석(竿石)으로부터 옥개(屋蓋)에 이르기까지 8각(角)의 상대(相對)하는 이면(二面)만이 넓어져서 편팔각형(偏八角形)을 이루고 있다. 정팔각형의 어느 일부(一部)에 변형(變形)을 준 것이 아니라 전체(全體) 형태(形態)에 변화(變化)를 주고 있는점, 특이한 형태(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表面)에 아무 장식(裝飾)이 없어

청수(淸秀)한 기품(氣品)이 있고, 팔각의 변형(變形)은 경쾌명랑(經快明朗)한 감(感)을 준다. 다만 아까운 것은 각부재(各部材)가 완존(完存)하지 못한 점(點)이니 그중(中)에서도 화사석(火舍石)의 결실(缺失)은 가장 큰 흠(欠)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형태(形態)를 가진 점은 유례(類例)가 드문 작품(作品)이라 하겠다.

대체로, 석등(石燈)은 화사석안에 등화(燈火)를 밝히는 것이 목적(目的)이니 높은 화사석(火舍石) 안에 등화(燈火)를 점멸(點滅)할 때에 발돋움(發돋움)이 필요(必要)하겠는데 그러한 부속시설(附屬施設)은 모두 없어지고 오지 실상사(實相寺) 석등(石燈)에서만 화강석(火崗石) 제로 계단(階段)을 마련한 예(例)가 남아 있으니 아울러 희귀(稀貴)한 예(例)라 할 수 있다.

4.

이상(以上)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까지의 석등(石燈)을 일관(一觀)하였는데 다음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예(例)를 보기로 한다. 이시대의 석등(石燈)은 대체(大體)로 다음의 세가지 유형(類型)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다. 즉(卽),

① 전형양식(典型樣式)—이것은 신라시대(新羅時代)에 팔각(八角)의 위주(爲主)로 하였던 형태의 계승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高麗) 초기(初期)에 유행(流行)한 형식(形式)이고 고려(高麗)의 새로운 양식(樣式)이 뒤이어 나타나게 된다.

② 방형양식(方形樣式)—고려시대(高麗時代) 석등(石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식(樣式)으로 이 시기(時期)의 독특(獨特)한 양식이다. 즉(卽), 상하(上下)가 방형(方形)을 기본형태(基本形態)로 하여 구성(構成)한 것이다.

③ 이형양식(異型樣式)—팔각형에서 방형(方形)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過渡期的) 양식(樣式) 또는 신라(新羅)의 이형양식(異形樣式)의 모방(模倣)등의 형태(形態)가 이 속에 포함(包含)된다. 이하(以下) 각(各) 양식(樣式)에 속(屬)하는 대표작(代表作)을 보면서 그 특징(特徵)을 살피기로 한다.

① 무량사 석등(無量寺 石燈) (忠南)(寶物 第1333號)

② 금산사 석등(金山寺 石燈) (全北)

③ 나주 서문 석등(羅州 西門 石燈)(原在全南 今在景福宮)(寶物 第三六四號)

등이 있다. 무량사 석등(無量寺 石燈)은 상하(上下) 각부(各部)가 모두 팔각(八角)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고 있는 점(點)은 신라양식과 다른 바 없다. 하대(下臺)에 팔판연화(八瓣蓮花) 간석(竿石)은 팔각주(八角柱) 상대(上臺)에 팔판양련(八瓣仰蓮), 그 위의 팔각화사(八角火舍)에는 4면(面)에 화창(火窓)이 뚫리고 팔각개석(八角蓋石)이 얹혀 있다. 이 석등(石燈)의 제작시기(製作時期)에 대(對)하여는 신라말(新羅末) 고려초(高麗初)로 여겨지고 있으나 필자(筆者)는 나대(羅代)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理由)로는 다음과 같은 점(點)을 들 수 있다.

첫째, 양련석(仰蓮石)의 양식(樣式)이다. 나대(羅代)에서는 팔각간석(八角竿石)과 접속(接續)되는 부분(部分)에 수단(數段)의 괴임이 있는 것이 통례(通例)인데 여기서는 그 점(點)이 생략(省略)된 점(點)이 눈에 띈다.

둘째로 상대석(上臺石) 양련(仰蓮)의 형태(形態)가 특이(特異)하다. 양련(仰蓮)은 일반적(一般的)으로 밖으로 두드러지는 호선(弧線)을 그리는 것이 통례(通例)인데 여기서는 그 반대(反對)로 내만(內彎)된 호선(弧線)을 그리고 있다.

셋째로 개석(蓋石)의 전각(轉角)밑이 낙수면(落水面)에서와 같이 위로 반전(反轉)되고

있는 점(點)이다.

이러한 특징(特徵)들이 고려석등(高麗石燈)이 갖는 특징적(特徵的)인 요건(要件)은 아니지만 전체(全體)의 형태에서 풍기는 감각(感覺)과 아울러 신라(新羅)라기 보다는 고려(高麗)의 작품(作品)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理由)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特徵)은 금산사 석등(金山寺 石燈)에서도 볼 수 있으니 동대(同代)의 작(作)으로 보여진다.

다음 나주 서문 석등(羅州 西門 石燈)은 신라(新羅)의 전형양식(典型樣式)을 답습(踏襲)하고 있으나 부분적(部分的)으로 현저(顯著)한 고려기(高麗期)의 특징(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후(濃厚)한 장식성(裝飾性)을 보여주고 있다. 즉(卽), 방형(方形) 지대석(地臺石)에는 각(各) 면(面)에 삼구식(三區式)과 팔각(八角) 하대석(下臺石) 각(各) 면(面)에 일구식(一區式)의 안상(眼象)을 조각(彫刻)하였는데 안상(眼象) 윤곽선(輪廓線)이 양측(兩側)에서 하향(下向)하다가 지선(地線)에 이르러 내부(內部)로 향(向)해서 연장(延長)되어 안상(眼象) 내(內)에 화형(花形)을 형성(形成)하고 있으니 이는 고려시대(高麗時代)에서만 나타나는 안상형태(眼象形態)이다. 다음 상대석(上臺石) 상면(上面)에는 팔각(八角)으로 화사석(火舍石)을 받기 위(爲)한 층단(層段)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층단이 신라 석등(石燈)에도 보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앙련(仰蓮)과 유리(遊離)된 것 같은 형태(形態)로서 마치 고려시대(高麗時代) 석탑(石塔)에 있어서 옥신(屋身)을 받기 위(爲)하여 별석(別石)을 첨가(添加)한 수법(手法)과 같은 형태(形態)이다. 다음 개석(蓋石) 측면(側面)에는 귀꽃, 화문(花紋)을 조각(彫刻)하고 그 밑에 평행중선대(平行縱線帶)를 돌려서 장식성(裝飾性)이 강조(強調)되었을 뿐 아니라, 그 형태(形態) 역(亦) 폭(幅)에 비(比)하여 두께가 두꺼워진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석탑(石塔)에 있어서 나대(羅代)에 비(比)하여 옥개석(屋蓋石)이 두꺼워지고 폭(幅)이 줄어서 낙수면(落水面)이 급경사(急傾斜)를 이루는 양식(樣式)과 규(規)를 같이 한다. 그 위에 얹힌 보개(寶蓋)에 조각(彫刻)이 가미(加味)되어 있다. 특(特)히 이 팔각간석(八角竿石)의 각면(各面)에는 명문(銘文)이 조각(彫刻)되었는데

『대안(大安) 구년(九年) 계유(癸酉) 칠월(七月)』

이라는 연대가 들에 있어 고려(高麗) 선종(宣宗) 십년(十年)(西紀 一〇九三年)의 제작(製作)임을 알 수 있어 양식(樣式) 발전(發展)을 고찰(考察)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參考)로 부언(附言)하여 들 것은 이 석등(石燈)은 1929년 원(原)위치(位置)에서 경복궁(景福宮)으로 이치(移置)한 것인데 화사석(火舍石)과 보주(寶珠)는 결실(缺失)되었던 것을 그 당시(當時) 신조보완(新造補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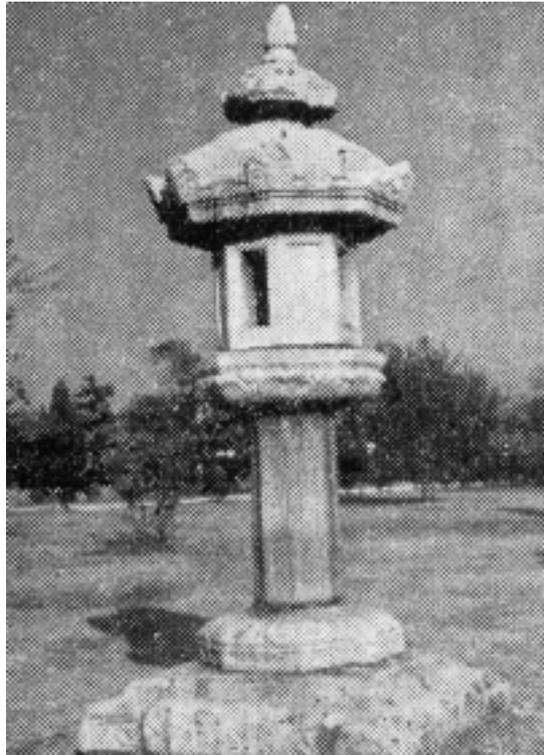
전형양식(典型樣式)에 속(屬)하는 여대(麗代)의 석등(石燈)의 예(例)가 더있기는 하나 모두 파등(破燈)들이다.

다음에 방형석등(方形石燈)을 보기로 한다. 이 형식(形式)에 속(屬)하는 석등(石燈)으로 다음과 같은 예(例)를 들 수 있다.

- ① 관촉사 석등(灌燭寺 石燈)(忠南) (寶物第 第二三號)
- ② 고려 공민왕현릉금노국공주정릉전석등(高麗 恭愍王玄陵及魯國公主正陵前石燈)(京畿)
- ③ 고려 칠릉군 제칠릉 전 석등(高麗 七陵群 第七陵 前 石燈)(京畿)
- ④ 통도사 석등(通度寺 石燈)(慶南)
- ⑤ 정양사 석등(正陽寺石燈)(江原)
- ⑥ 금강산마애아미타여래좌상전석등(金剛山磨崖阿彌陀如來坐像前石燈)(江原)

⑦ 개성박물관 석등(開城博物館 石燈)(京畿)

등(等)을 들 수 있다. 이 석등(石燈)들이 상하(上下) 방형(方形)을 기본(基本)으로 삼고 있는 점(點)은 공통(共通)되나 각(各) 부분(部分)이 전형양식(典型樣式)과 같이 획일(劃一)하지 않고 잡다(雜多)함을 볼 수 있어 양식적(樣式的)인 통일성(統一性)이 없다. 그 중(中)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點)은 간석(竿石)과 화사석(火舍石)의 양식(樣式)이다.



<나주 서문 석등(羅州 西門 石燈)>

먼저 간석(竿石)을 보면 원주(圓柱)와 방주(方柱)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원주(圓柱)를 사용(使用)한 예(例)로는 관촉사 석등(灌燭寺 石燈)을 들 수 있는데 원주(圓柱) 상하단(上下端)에 굵은 두 줄의 띠를 두르고 중앙(中央)에는 삼조(三條)의 띠를 둘렀는데 가운데 것은 조금 굵어서 그 위에 사엽(四葉)의 복판(複瓣) 연화문(蓮花紋) 8개(個)를 안배(按配)하고 있다. 이 연화(蓮花)의 수(數)는 팔각기본형(八角基本形)의 유풍(遺風)으로 생각되니 원주(圓柱)를 쓰면서도 하대석(下臺石) 위에 있는 원주(圓柱)받침이나 상대석(上臺石) 밑의 원주(圓柱) 괴임에도 팔각(八角)물당이 있는 것과 궤(軌)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외(外)에 금강산 정양사 석등(金剛山 正陽寺 石燈) 통도사(通度寺) 석등(石燈)도 원형간석(圓形竿石)을 갖고 있으니 관촉사(灌燭寺) 석등(石燈)에서와 같이 상중하(上中下)에 띠를 돌리고 있되 특별(特別)한 문양(文樣)은 없다. 통도사(通度寺) 석등(石燈)은 이 보다도 더 약화(弱化)되어 중간(中間)에만 긴대(緊帶)가 돌려 있다. 방주(方柱)의 경우(境遇)는 상당(相當)히 많이 볼 수 있으니 전개(前揭)한 제례(諸例) 중 ②, ③, ⑥, ⑦ 등(等) 모두 방주간석(方柱竿石)들이며, 그 외(外)의 파등(破燈)에서도 그 예(例)를 볼 수 있다. 이 방형석주(方形石柱)의 굵기와 높이는 곧, 신라(新羅), 전형(典型) 양식(樣式)의 팔각간석(八角竿石)에서와 같이 전체(全體) 균형(均衡)에 중요(重要)한 요소

(要素)가 되는 것이나 만큼 상당(相當)히 신경(神經)을 썼으리라고 짐작된다. 초기(初期) 석등(石燈)에 있어서는 상대석(上臺石) 이상(以上)의 구조(構造)를 떠받을 수 있을만한 힘이 부여(賦與)되고 있으나, 중기(中期) 이하(以下)로 내려오면서 석등(石燈) 자체(自體)가 저소(低少)하여짐에 따라 간석(竿石)도 가늘고 짧아지면, 혹(或)은 상하단(上下端)이 굵은데 비(比)하여 중간(中間)이 잘록하게 가늘어져서 포함(包險)해 보일 정도로 약(弱)해진 예(例)를 볼 수 있다. 그것이 말기(末期)로 내려오면 석등(石燈) 전체(全體)의 조형(造形)이 살이 두껍고 왜소(矮小)해져서 둔탁한 감(感)을 준다. 방형간석(方形竿石)도 상하대석(上下臺石)과의 폭의 차가 적어서 마치 방형석주(方形石柱)에 다소(多少)의 손질을 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도 간석(竿石) 사면(四面)에 윤곽선(輪郭線)을 음각하여 빈곤(貧困)한 장식성(裝飾性)을 나타낸 예(例)가 있으니 이러한 수법(手法)은 이조기릉묘(李朝期陵墓) 앞에 설치(設置)하는 장명등형식(長明燈形式)에 계승(繼承)되고 있다. 공민왕(恭愍王) 현릉(玄陵)과 정릉(正陵) 앞의 장명등(長明燈)은 같은 형식(形式)인데 특(特)히 방형간석(方形竿石) 4면(面)에 해이(解弛)된 안상(眼象)을 조각(彫刻)하고 그안 중앙(中央)에 3화(花)를 품자형(品字形)으로 두고 거기서부터 파상형(波狀形)의 방사선(放射線)을 양각(陽刻)하여 안상내부(眼象內部)를 충전(充填)하여 놓았다. 안상(眼象) 자체(自體)의 형식(形式)도 고려기(高麗期)의 통식(通式)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안을 문양(紋樣)으로 충색(充塞)한다는 것은 번다(繁多)하기만 하다.

다음 화창(火窓)의 형태(形態)를 보면 3종(種)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는데 첫째는 화사석(火舍石)을 따로 없지 않고 방형(方形) 혹(或)은 원형(圓形)의 4개(個)의 우주(隅柱)를 상대석(上臺石)과 개석(蓋石) 사이에 끼워서 4면(四面)에 화창(火窓)을 개설(開設)하게 한 것과 같은 역할(役割)을 하게 한 것이다. 방형(方形)을 기본형식(基本形式)으로 삼은 데서 온 편화형(便化形)식이며 개성박물관 석등(開城博物館 石燈) 관촉사 석등(灌燭寺 石燈)은 방형우주(方形隅柱)를 썼고, 금강산 마애아미타여래 전석등(金剛山 磨崖阿彌陀如來 前石燈)은 원형우주(圓形隅柱)를 예(例)이다 둘째는 방형화사석(方形火舍石)을 별도(別途)로 없던 각면(各面)에 모두 화창(火窓)을 개설(開設)한 것이고 셋째는 방형화사석(防形火舍石) 전후면(前後面)에만 화창(火窓)을 낸 것이다. 4면(四面)에 화창(火窓)을 낸 예(例)로는 통도사 석등(通度寺 石燈)을 들 수 있고, 전후면(前後面)에만 화창(火窓)을 낸 예(例)로는 칠릉군(七陵群) 제삼릉(第三陵) 제칠릉(第七陵)과 공민왕현릉(恭愍王 玄陵), 노국공주정릉 앞 석등(老國公主正陵 前 石燈)을 들 수 있다. 화창(火窓)의 수(數)도 차차(次次) 약화(略化)되는 과정(過程)이 짐작된다.

끝으로 이형석등(異型石燈)을 보기로 한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高麗時代) 석등(石燈)에서는 하나의 양식(樣式)을 따르면서도 부분적(部分的)으로 양식적(樣式適) 다양성(多樣性)을 띄고 있어 이형석등(異型石燈)은 더욱이 그러한 감을 질게 한다. 그 중에는 전시대양식(前時代樣式)의 모방(模倣)도 있고, 한 양식(樣式)의 변천과정(變遷過程)에 있어 과도적(過渡的)인 형태(形態)를 보이는 것이 있고, 또는 전(全)혀 새로운 양식(樣式)의 출현(出現)도 있다. 첫째, 전시대(前時代)의 모방(模倣)은 비단 석등(石燈)에서 뿐만 아니라 석탑(石塔)에서도 볼 수 있으니 신라통일시대(新羅統一時代)의 화엄사(華嚴寺) 사사3층석탑(四獅三層石塔)을 모방(模倣)하여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빈신사(頻迅寺) 사사오층석탑(四獅五層石塔)이나 주리사(主吏寺) 사사3층석탑(四獅三層石塔)이 나왔고,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경천사(敬天寺) 십층대리석탑(十層大理石塔)을 모방(模倣)하여 이조기(李朝期)에 원각사(圓覺寺) 십층대리석탑(十層大理石塔)이 나오는 등(等)은

가장 현저(顯著)한 예(例)이며, 이 외(外)에도 부여(扶餘) 정림사지(定林寺址) 오층석탑(五層石塔)의 양식(樣式)을 모방(模倣)한 석탑(石塔)이 호남지방(湖南地方)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점(點)으로 알 수 있다. 석등(石燈)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니 고달사지 쌍사자석등(高達寺址 雙獅子石燈)은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의 작(作)인 법주사(法住寺)나 영암사(靈岩寺) 혹(或)은 중흥산성(中興山城)의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을 모방(模倣)한 것이다 그러나 쌍사자(雙獅子)를 이용했다 뿐이지 간석(竿石)의 형태(形態)는 전기(前記) 3례(例)와 전연(全然) 다르다 즉(卽) 나대(羅代)의 사자(獅子)가 마주 서서 앞 발로 상대석(上臺石)을 버티고 섰던 사자(獅子)의 형태(形態)는 여기서는 두 마리 모두 전면(前面)을 향(向)하여 쭈그리고 나란히 앉아 있다. 그 위에는 여러 층(層)의 간석(竿石)이 없히고 상대석(上臺石) 위에 4개의 화창(火窓)이 뚫린 화사석(火舍石)이 없히고 개석(蓋石) 위는 망실(亡失)되었다. 간석이상(竿石以上)의 부분(部分)은 팔각(八角)으로 되어 있으나 정팔각(正八角)이 아니고 사각(四角)의 모마 죽인 형태(形態)이어서 아무래도 방형(方形)이라는 형태(形態)가 강(強)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감각(感覺)은 사자(獅子) 밑의 하대석(下臺石) 지대석(地臺石)등이 모두 방형(方形)을 이루고 있는 점(點)이 또한 적지아니 작용(作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보다도 쭈그린 사자(獅子)등 위에 실린 무거운 짐은 이 적은 두 마리의 사자(獅子)의 힘으로는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이만 보인다. 이 점(點)은 빈신사5층석탑(頻迅寺五層石塔)의 사자(獅子)를 볼 때에 느끼는 바와 다름 없다. 여하튼 석탑(石塔)이거나 석등(石燈)이거나 전대(前代)의 양식(樣式)을 모방(模倣)하면서 그보다 뛰어난 작품(作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음 양식변천(樣式變遷)의 과도적작품(過渡的作品)으로 옥구 발산리 석등(沃溝鉢山里石燈)(寶物 第二三四號)을 들 수 있다. 하대석(下台石)은 통식(通式)을 따르고 있으나 간석(竿石)은 각형(角形)의 네모를 둥글리고 표면(表面)에 운룡문(雲龍紋)을 양각(陽刻)하였다. 상대석(上臺石)은 무량사(無量寺) 석등(石燈)이나 금산사(金山寺) 석등(石燈)과 유사(類似)하나 그래도 일단(一段) 괴임이 부가(附加)되었다. 화사석(火舍石)은 간석(竿石)과 같이 각형(角形)에 모를 죽이고 둥글린 다음 사면(四面)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양각(陽刻)하고 그 사이에 4개의 화창(火窓)을 내었는데 타원형(橢圓形)이다. 타원형(橢圓形) 화창(火窓)은 정양사(正陽寺) 석등(石燈)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이례(異例)에 속(屬)한다. 개석(蓋石)은 팔각통식(八角通式)을 따르고 있어 전형석등(典型石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석등(石燈)에서 주목(注目)되는 점(點)은

- ① 간주(竿柱)나 화사석(火舍石)이 팔각(八角)에서 사각(四角)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過渡期的) 양식(樣式)을 나타냈으며,
- ② 간주(竿柱)의 운룡문(雲龍紋)은 보기 드문 형식(形式)이며,
- ③ 타원형(橢圓形) 화창(火窓) 역(亦) 그 유례가 희소(稀少)하다.

등(等)이다. 따라서 이 석등(石燈)은 아무래도 고려(高麗)에 들어와서의 제작(製作)으로 봄이 어떨까 한다.

이형석등(異型石燈)의 셋째로서 정양사 석등(正陽寺 石燈) 또는 파등(破燈)이지만 1965年 1月 강원도(江原道) 원성군(原性郡) 부논면(富論面) 법천리(法泉理) 법천사지내(法泉寺址內) 지광국사(智光國師) 현묘탑(玄妙塔) 전지(殿址)에서 발견(發見)된 화사석편(火舍石片)(金東賢, 원성법천사지발견(原性法泉寺址發見) 석등화사석편(石燈火舍石片) —고고미술(考古美術) 第6卷 第34號 참조(參照))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평면육각형(平

面六角形)이라는 점(點)이 특이(特異)하다. 평면방형(平面方形)을 묵수(墨守)하던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석탑형식(石塔形式)이 고려(高麗)에 들어오면서 다각형(多角形) 석탑(石塔)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도 금산사(金山寺) 육각다층석탑(六角多層石塔)과 같은 육각형(六角形) 석탑(石塔)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석등(石燈)에서도 6각(角)이 나올법한 일이다. 정양사 석등(正陽寺 石燈)은 하대석(下台石), 상대석(上台石), 화사석(火舍石), 개석 모두 육각을 기본형(基本形)으로 하였고, 화사석(火舍石)에는 육면(六面)에 모두 타원형(橢圓形) 화창(火窓)이 뚫려 있다. 법천사 석등(法泉寺 石燈)은 육각형(六角形) 중 삼면(三面)에 화창(火窓)을 개설(開設)한 듯하며, 전면(全面)에는 연화문(蓮花紋), 당초문(唐草紋), 화엽문(花葉紋), 장막형(帳幕形), 비천(飛天), 그 외(外)에 인방(引枋), 난간 등(等) 목조 건축양식(木造建築樣式)까지 만면(滿面)의 조식(彫飾)이 장엄(莊嚴)하다 비록 파편(破片)이기는 하나 육각(六角)으로 복원(復原)할 수 있어 평면형태(平面形態)의 특이(特異)한 점(點)에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樣式)으로 볼 수 있다.

이 범주(範疇)에서 드는 석등(石燈)으로서 들어두어야 할 또 하나의 석등(石燈)으로 신록사(神勒寺) 보제존자석중전석등(普濟尊者石鍾前石燈)(寶物 第二三一號)이 있다. 이 석등(石燈)의 제작(製作)은 보제존자석중(普濟尊者石鍾),묘비(墓碑)등(等)과 시기(時期)가 같은 것으로 보고 서기 1379년으로 추정됨으로 옥구발산리(沃溝鉢山里) 석등(石燈)이 나대(羅代)에서 여대(麗代)로 옮기는 과도양식을 보이는 것이라면 이 석등(石燈)은 여대(麗代)에서 차대(次代)로 옮기는 과도양식(過渡樣式)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석등(石燈)은 팔각(八角)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고 있는 점(點)은 전형양식(典型樣式)과 다를 바 없으나 상하대석(上下台石)의 높이과 화사석(火舍石)의 높이가 거의 맞먹는 점(點) 또는 간석(竿石)의 폭(幅)과 화사석(火舍石)의 폭(幅)이 거의 맞먹는 점(點) 등(等) 이례(異例)의 형태(形態)를 보이고 있다. 대리석(大理石)을 재료(材料)로 한 화사석(火舍石)의 전면(全面)에 조각(彫刻)이 번다(繁多)하고 각(各) 면(面)에 개설(開設)된 화창(火窓)의 형식(形式) 또한 안상(眼狀)을 모(模)한 특이(特異)한 형태(形態)를 보이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태석(苔石)의 형식(形式)에서 간석(竿石)의 폭(幅)이 넓어지고 높이가 줄어든 점(點)은 나말(羅末) 왕릉(王陵) 앞 장명등(長明燈)에서 보던 간석(竿石)의 형태(形態)와 같아서 팔각(八角)이든 사각(四角)이든 흑(或)은 원형(圓形)이든 높고 날씬한 기본형태(基本形態)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러한 둔중(鈍重)한 형식(形式)은 이조기(李朝期) 석등(石燈)으로 계승(繼承)되고 있다.

이상(以上) 고려말(高麗末)의 석등(石燈)을 보아 왔는데 이것을 요약(要約)하면 전대(前代)에 유행(流行)하던 팔각(八角)을 기본형식(基本形式)으로 삼은 전형양식(典型樣式)이 초기(初期)에는 그대로 계승(繼承)되다가 평면(平面) 방형(方形)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는 새로운 양식(樣式)이 발생(發生)하였고, 그것은 마침내 방형(方形)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되 석주(石柱)와 같은 액센트가 없는 이조기(李朝期) 석등(石燈)의 양식(樣式)이 이 시기(時期) 말기(末期)부터 나타나기 시작(始)한다. 그 동안에 쌍사자 석등(雙獅子石燈) 같은 전대(前代)있었던 특이(特異)한 양식(樣式)의 모방품(模倣品)도 나타났던 것이다.

5.

끝으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석등(石燈)에 대(代)하여도 일언(一言)해두어야 하겠다. 이 시대(時代)에 석등(石燈)을 설치(設置)한 예(例)는 역대왕릉(歷代王陵) 룡침(陵寢) 앞

에 세운 장명등(長明燈)이 대표(代表)하고 있다. 이 석등(石燈)들은 형태(形態)나 조식(彫飾)에 큰변화(變化)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획일적(劃一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공통(共通)된 특징(特徵)을 들면,

- ① 평면팔각형(平面八角形)을 기본형(基本形)으로 삼았고,
- ② 상대석(上台石)과 하대석(下台石)이 높아져서 측면(側面)에 공간(空間)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 과다(過多)한 조식(彫飾)이 있고,
- ③ 개석(蓋石)은 좁고 두꺼워서 낙수면(落水面)이 급경사(急傾斜)를 이루었으며,
- ④ 개석(蓋石)의 넓이를 무시(無視)한다면 팔각석주(八角石柱)의 인상(印象)을 면(免)치 못하고 있다.

태조 건원릉(太祖 建元陵), 세종 영릉(世宗 英陵), 선조 목릉(宣祖 穆陵), 인조장릉(仁祖長陵), 효종 영릉(孝宗 寧陵) 등(等) 능침(陵寢) 앞의 석등(石燈)들은 모두 이와같은 형식(形式)이며 각기(各其)의 형태(形態)에도 큰 변화(變化)가 없다. 하대석(下台石) 각(各) 면(面)에 안상(眼象) 혹(或)은 화문(花紋)이 조각(彫刻)되고, 약간(若干) 잘록해진 간석(竿石)에도 안상(眼象) 혹(或)은 화문(花紋)이 있으며 상대석(上台石)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형태(形態)는 전대(前代) 석등양식(石燈樣式)과 크게 다른 바이지만 상하대석(上下台石)에 양복련(仰伏蓮)의 조각(彫刻)은 잊지 않고 있다. 화사석(火舍石)에는 특별(特別)한 조각(彫刻)이 없으나 다만 화사석(火舍石) 상부(上部) 혹은 개석(蓋石)밑에 두공(料拱) 혹은 부연(附椽) 등(等) 목조건축물(木造建築物)의 가구(架構)를 모각(模刻)한 것이 있다.

이조(李朝) 왕릉(王陵)의 석등(石燈) 중에서 하대(下代)에 속(屬)하는 정조(正組) 건릉(健陵)의 석등(石燈)은 조각(彫刻)이 가장 화려(華麗)하고 새로운 의장(意匠)을 고안(考案)하고 있다. 즉(卽), 팔각하대면(八角下台面)의 각(各) 우각(隅角)에는 호족형(虎足形)을 부각(附加)하였고, 간석(竿石)에는 안상(眼象) 내(內)에 화문(花紋)이 조각(彫刻)되고, 상대석(上台石) 각면(各面)에는 원권내(圓圈內) 평판적(平板的)인 초화문(草花文)이 조각(彫刻)되고 화사(火舍)의 화창(火窓)은 원형(圓形)이며 개석(蓋石) 하면(下面)에는 부연(附椽)이 달렸고, 낙수면(落水面)에는 3중(重)의 개석형(蓋石形)이 모각(模刻)되었다.

6.

이상(以上)으로써 한국(韓國)의 각(各) 시대(時代) 석등(石燈)을 통관(通觀)하였는데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석등(石燈)은 다양성(多樣性)을 띄고 있지만 석등(石燈)의 조형감각(造形感覺)이 세련(洗練)되고 제작기술(製作技術) 역(亦) 우수(優秀)하여 명쾌(明快)한 미(美)를 보이더니, 여대(麗代)가 되면서 전대(前代)의 모방품(模倣品)이 나오게 되고 기본형(基本形)은 방형(方形)으로 변(變)하며 조형감각(造形感覺)이나 기법에 있어서도 나대(羅代)의 작품(作品)에 뒤떨어져서, 이시기(時期)의 다른 석조물(石造物)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둔중(鈍重)한 감(感)을 준다. 그러다가 이조(李朝)가 되면 팔각(八角)을 기본형(基本形)으로 하는 획일적(劃一的)인 작품(作品)이 만들어지고 문양조식(紋樣彫飾)에 있어서도 초화문(草花文)이나 수자문(壽字文) 나타나는 등(等) 유교적(儒教的)인 풍(風)을 발산(發散)하게 된다.

(필자(筆者) · 이화대박물관장(梨花大博物館長))

금관총(金冠塚)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노서리(路西里)에 소재(所在)하고 경주시(慶州市) 남방(南方) 평지(平地)에 거대(巨大)한 봉토(封土)를 즐비하게 늘어 놓은 고분(古墳) 중(中)의 하나이다.

一九二一年 구월에 우연(偶然)히 발견(發見)되어, 금관(金冠)을 비롯하여 황금(黃金) 귀고리 초두(鏹斗), 허리띠와 곡옥(曲玉)을 붙인 목걸이 등(等) 장신구(裝身具) 및 무구(武具)·유리잔·칠기(漆器) 따위가 출토되었다.

금관총(金冠塚)의 원형(原形)은 직경(直徑) 五〇米 높이一三米 정도(精度) 고대신라(古代新羅)의 특유(特有)한 적석총(積石冢)으로 속에 목곽(木槨)이 만들어져고 옷칠한 목관(木棺)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출토품(出土品)과 분묘(墳墓)의 형식(形式)으로 보아 삼국통일 이전(以前)의 왕릉(王陵)같고 불교(佛敎)의 영향(影響)이 있는 점으로 보아 소지왕(炤知王) 지증왕(智證王) 또는 법흥왕(法興王) 등을 전후(前後)한 시대(時代)의 것으로 추측(推測)된다.